

##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 연구

### The Adolescence's Lived Experiences of Group Home

-삐뚤 혹은 삐딱한 선으로 그린 우리 집-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

김 선 민

(한성대학교)

조 순 실

(숭실대학교)

#### [요 약]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그룹홈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유대의 신화가 깨어진 경험을 통해 그룹홈 입소를 하였다. 그룹홈에서 또래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경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룹홈 청소년의 체험은 부대낌을 통해 정을 다지고 신뢰하게 되며 '보살핌'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식구로 선택하며 버거운 '자립'의 과제를 풀려고 고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의 결과로 그룹홈에 관련된 정책 및 실천이 그룹홈 거주 주체인 청소년들의 성장을 원조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그룹홈, 거주청소년, 체험, 가족

#### 1.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가족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결과 공동체로서 성원사이의 중심적인 유기적 관계를 만드는 기존의 가족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IMF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

이 해체돼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의 붕괴에 크게 영향을 받아 가정의 테두리에서 이탈되는 현상과,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직장의 이동으로 인한 가족 간의 이산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선택한다는 속칭 '기러기 가족'이라는 가족 간의 자발적 이산 현상은 가족 내의 유대에 대한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족의 해체 또는 취약한 구조로 인해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시설보호 위주였으나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정보호와 지역사회보호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입양과 위탁가정제도, 그리고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리보호 서비스체계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로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대안가정으로 제시된 그룹홈<sup>1)</sup>이 2002년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될 때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점이다. 그리고 2004년 7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동생활가정 신고제도가 확립되어 2008년 12월 현재 348개소에 아동·청소년은 1,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맥락에서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김형태·조순실, 2009). 그룹홈 정책 입안자들은 그룹홈 거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입소 청소년들을 그룹홈 거주 주체자로 보기 보다는 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정책의 좌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룹홈 거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험은 빠져있었다. 또한 가정의 보호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가족에게 복귀할 수 있을 경우 그들의 원가족을 원조하거나 자립을 도와야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해야하는 그룹홈의 실무자들 역시 창조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홈 청소년들의 거주체험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 2. 문헌고찰

우리나라의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설규모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다(이태수 외, 1997). 시설규모와 아동청소년의 자립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소규모시설의 아동청소년의 자립성과 심리사회적응력이 훨씬 높아서 시설의 규모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시설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규모시설에서 가족적인 유대감이 대규모시설보다 강할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도 역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삼미, 1989). 시설규모와 관련하여 시설아동청소년의 양육환경과 심리 및 정서 태도를 살펴본 연구

1) 그룹홈은 위탁가정과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시설로서 실무자들과 보호청소년, 보호 청소년들 사이의 지원관계를 촉진하며, 치료수단으로서 집단작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교사의 지도감독(supervision)하에 소수가 함께 거주하는 생활보호시설이다(김형태·조순실, 2009).

(이태수 외, 2001)에서는 소규모시설 아동이 대규모시설 아동보다 의식주, 일상생활, 학업성취 면에 더 긍정적임이 드러났고 소규모시설 아동들이 대규모시설 아동들보다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 상호 친밀적이며, 응집력이 있다는 것과, 거주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인원의 수와 시설 내 거주 구성원의 지지임이 드러났다.

대규모 시설아동과 구별되어 그룹홈과 유사한 형태가 위탁가정이다. 위탁가정제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 및 정착되었기 때문에 연구들은 개념 및 제도의 필요성 등 탐색적인 논의 수준이거나 타 서비스와의 비교(허남순, 2004) 등에 머물러 있다. 위탁가정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어떤 과정으로 적응하는가(김진숙 이혁구, 2007)를 살핀 연구에서는 아동의 적응유형의 발견에 초점을 두었다.

그룹홈에 대한 초기연구인 그룹홈 내에서의 생활지도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노혜련, 1999)와 사회사업적인 원리적용 및 기초조사 연구를 위해 현장의 실태조사 및 사례 연구(박용철, 1998; 김광수, 1999; 조순실, 1999)등에서는 그룹홈과 관련하여 부모 관련 요인들이 부각되었다. 그룹홈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김성경, 2003; 강기정, 2003; 조성연, 2004; 김형태·조순실, 2009)에서는 심리 사회적 적응의 저해요소 및 그룹홈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룹홈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친구의 지지와 그룹홈 가족의 지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했다(김형태·조순실, 2009). 그룹홈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김성경, 2003b)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로 분류하여,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그룹홈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룹홈 청소년들은 정서문제보다 행동문제에 심각성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공동생활로 인한 주관적인 스트레스는 거의 받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그 다음으로는 주변 환경 스트레스, 교통·경제적 스트레스, 보호자 스트레스 순으로 그룹홈 청소년들은 보호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교통·경제적 스트레스, 공동생활 스트레스, 주변 환경 스트레스의 세 개의 요인과 성별, 부모유무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행동적 적응에는 교통·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을 가족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김현주, 2002)에서는 그룹홈의 가족응집성의 측면인 공동체 의식과 가족성원간의 유대감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족 간 유대감은 청소년자녀들의 이전 가족에서 경험했던 가족 간 유리를 극복하고 치료하는데 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적응성의 측면에서 그룹홈은 여러 명이 생활을 공유하므로 규칙의 적용과 벌칙의 시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높아 경직되어 있으나, 진로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청소년자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룹홈과 일반가정의 청소년 및 양육행동을 비교한 연구들(정선옥, 2001; 조성연, 2004)이 있는데, 가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연구에서는 애착유형과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안정형 애착유형이 적었고 회피형 양가형보다 조금 많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많다고 응답했지만 친구에 대한 신뢰, 친밀감 등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옥, 2001). 일반가정과 그룹홈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형제자매관계 및 사회적 적응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그룹홈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그룹홈의 아동도 적절한 물리적, 정서적 환경이 제공된다면 사회적 적응이 용이하고, 비록 비 혈연 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와 형제자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내 주었다(조성연, 2004).

그룹홈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적응에 대한 연구(김형태·조순실, 2009)에서 친구의 지지는 심리적응에, 그룹홈 가족의 지지는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지지 변인이었다. 친구의 지지와 그룹홈 가족의 지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쳐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확보되어도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룹홈의 생활환경에 대한 외국 연구들은 생활환경이 거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성경, 2003b). Colton(1988)의 위탁가정 청소년과 집단보호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그 자체는 거주 청소년의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집단보호에서 심리사회적 환경인 거주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연구(Eisikovitis 외, 1987)와 전문위탁가정과 집단보호시설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요소들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호자의 통제와 처벌 그리고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환경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lton 1988; 1990)가 있다(김성경, 2003a).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룹홈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입소 아동·청소년들의 적응 및 적응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 부모와의 관계, 가족 내 응집력 및 일반 가정과의 양육방식 차이 등 그룹홈 청소년들의 삶의 요소 중 '결여'부분과 행위 및 태도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최근 연구는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양적 연구에 한정되어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행위자로서 보는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그룹홈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 그룹홈에 거주하는 주체자 및 행위자로 보는 시각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연구 과정

#### 1)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그룹홈 거주 청소년들에게 그룹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대상자의 사고, 지각, 느낌에 대하여 조명하는 현상학적인 연구 접근을 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자의 언어, 신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해 있는 경험의 의미

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밴 매넨, 2000). 원가족과의 분리 경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경험, 친 가정 복귀 혹은 자립 준비 경험 등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현상을 해석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해석학적 현상학 접근이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그룹홈 청소년들이 그룹홈에 입소한 이후에 체험한 삶의 의미를 텍스트화하고 기존의 해석태도 즉 인습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다. 본질의 의미는 대체로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파악되지 않으므로 체험의 구조적 혹은 주제적 측면을 반성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밴 매넨, 2000).

## (2) 연구질문

본 연구의 질문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그룹홈을 어떻게 체험하는가?”이다.

## 2) 자료수집방법과 윤리적 고려

### (1) 개별 인터뷰 및 연구자 관찰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0월 13일부터 2009년 3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연구자의 관찰 및 생활교사들의 인터뷰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룹홈 생활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듣고 동의를 한 참여자들이다. 개별 인터뷰 시 녹음에 대한 허락을 구하여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는 개별 연구참여자의 거주 그룹홈 빈방을 이용하였고 인터뷰시간은 최장 2시간이다. 매 인터뷰 때마다 연구노트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비슷한 가족 형편에 있으나 그룹홈이 아닌 한부모 가정에서 사는 청소년을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내용과 비교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 (2) 연구대상자 선정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13세~18세의 그룹홈 청소년들이다.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의 연령은 9-24세인데, 여기에서는 복지적 수준에 입각한 청소년 연령인 13세~18세의 청소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체험을 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최소한 거주기간이 1년 정도 이상이어야 그룹홈에서의 체험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남녀 청소년이 각각 6명으로 총 12명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가정 내의 학대와 가족 해체로 인한 방임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이다.

### (3) 윤리적 고려

인터뷰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취지를 다시 직접 설명하였고 또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일절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료

에서 녹취부분에서도 연구참여자의 실명을 알파벳 이니셜로 기록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부분에서도 생활교사에게 설명을 듣고 동의를 표명한 연구자들을 만났지만 다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연구목적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이후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3) 자료의 분석과정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녹취과정에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연구노트를 기록하였다. 이 연구노트는 녹취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의미를 되살릴 때 그때의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된 테이프를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녹취하였고 녹취록을 연구자들이 반복해서 읽고 특히 인터뷰를 실행한 연구자가 자신의 인터뷰 녹취내용에 대해 연구노트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모습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녹취록, 연구노트 및 관찰기록, 그룹홈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을 기록한 자료집(이해·선물 2, 2008)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은 단어, 문장, 단락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하였다. 그 후에 각 진술들의 주제를 진술문장 옆에 기록하였고, 각 진술들의 중심의미를 포착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개인의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수백 개의 의미 있는 진술들이 포함된 세분화된 진술들을 공통된 주제들로 묶어서 하위범주를 만들고 다시 몇 개의 하위 범주들을 포괄하는 범주를 만들었다.

각각의 연구참여자의 녹취록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문장들이 맥락적으로 정확한지를 여러 번 확인해야 했다. 녹취록만 의존할 경우 맥락을 무시한 주제의 선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연구노트 및 녹음을 직접 다시 들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 4) 연구의 엄격성과 적용성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자료분석에 있어서의 엄격성으로 신뢰성을 증진하려고 노력하였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룹홈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냄에 있어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였는가의 문제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직접 반구조화된 질 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을 인터뷰하였다. 한 연구자는 그룹홈 청소년들과 함께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룹홈 및 그룹홈 청소년들에 대한 선이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최대한 '팔호치기'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들 사이에 청소년의 체험 진술들을 자신의 경험의 렌즈로 걸러내는 것의 위험성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연구과정 내내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제 및 범주를 만들 때마다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기타 청소년 전문가에게 드러난 의미를 보이고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분석을 통해서 주제와 범주를 드러낸 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문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용성은 연구 상황 이외에서 이 연구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본 연구로 드러난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이 그룹홈 거주 청소년들을 이해하여 '창조적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4.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 별	나이	학년	그룹홈 보호 발생 요인	거주 기간	형제수 (청소년포함)
A	여	13세	중1	알코올문제를 가진 친부의 학대, 방임, 친모 가출로 고모와 살다가 의뢰됨	13개월	1명
B	여	17세	고2	알코올문제를 가진 친부, 계모의 학대, 방임, 친모행방불명으로 쉼터에서 의뢰됨	3년	1명
C	여	18세	고3	알코올문제를 가진 친부의 학대, 방임, 친부의 가정폭력으로 친모 이혼, 12세 때 스트레스로 인해 부분 청력장애자가 됨	3년	3명, 2명만 함께 배치
D	남	15세	중3	알코올 문제를 가진 친부의 가정폭력과 방임, 학교 부적응으로 친모가 양육이 어려워져 의뢰	1년	3명, 홀로 배치
E	남	17세	고2	가족해체로 쉼터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의뢰됨	15개월	1명
F	남	15세	중3	친모 가출, 친부가 집이 없어 떠돌이 생활하여 동생과 단둘이 방임됨	2년	2명, 함께 배치
G	남	15세	중3	친모 친부의 가출. 형과 단둘이 방임됨	18개월	2명, 함께 배치
H	여	15세	중3	친부 가출, 친모사망. 쉼터에서 의뢰함	18개월	1명
I	남	15세	중3	부모이혼, 친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악화	1년	1명
J	여	18세	고3	친부실종, 친모 가출 후 조모와 살다가 입소. 2년 전 재혼한 친모를 만났으나 함께 살지 못함. 쉼터와 그룹홈을 반복 입퇴소.	6년	2명, 홀로 입소
K	여	18세	고3	친부의 알코올 문제로 심한 학대, 이혼한 친모의 건강악화	30개월	1명
L	남	16세	고1	친부의 수감, 친모 가출, 친부의 출소로 가정 복귀 준비 중	2년	1명

## 5. 연구결과

### 1) 주제 분석

(1) 가족유대에 대한 신화의 깨어짐	(2) 터 잡기	(3) 새로운 세계로 행진
<p>웅크려 견뎌 튀겨 나옴 두 얼굴의 가족</p>	<p>낮선 일상의 삶 보살핌 저울질 끝에 받아들임 부대끼며 정 다지기 특별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람</p>	<p>세상살이 시운전 나갈 준비를 차림 저쪽 울타리 바라봄 내가 선택한 가족</p>

#### (1) 가족유대에 대한 신화의 깨어짐

##### - 웅크려 견뎌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에 입소하기 전 가정 구성원의 유대가 깨어지거나, 부모로부터 학대 및 방임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상과 만날 때 '무섭고 두렵고 해서 아무 친구를 만들지 않고 지내는 자신들을 기억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석 및 조퇴하거나 자기학대적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열악한 환경을 나름대로 견디었다. 일탈로 보이는 행위나 무력하게 보이는 행위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나름대로 견디는 행위였다.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배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G)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PC방 같은데 가고... 그게 좋았어요. 학교 간다고 하고 가지도 않고 PC방에서 애들하고 놀고, 이는 오빠랑 놀고 그랬어요. (J)

그때 저는 반 폐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게임하고 학교도 안가고 '될 대로 되라'였지요. (D)

연구 참여자 중에는 한부모와 같이 살면서 빈곤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방임된 채 살다가 그룹 홈에 들어온 경우가 있다. 일하는 빈곤층의 경우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불규칙하며 성장에 부적절한 생활에 노출되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사실 밥 먹는 날이 경사스러운 날이 있었어요. 한 3-4일에 한번 씩 밥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오븐도 없으니까 냉동식품, 그런 거 먹었어요. (I)

#### - 튕겨 나옴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유대의 신화가 깨어지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룹 홈에 입소한다. 가족 유대의 분열은 지리적 거리보다는 정서적 분열 혹은 인륜에 거스르는 사건들로서 경험된다. 연구 참여자는 과거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부족할지라도 자신이 균열된 가족의 유대 와 구조적 빈곤의 피해자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부모 및 주 양육자들은 가정을 유지할 의지가 매우 약화되었거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정서적 능력이 부족한 어른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환경을 견디다 못해 학교 다니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버지가 구속당하셔서,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 있다가 고모가 추천해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L)

연구 참여자 중에는 그룹 홈 이전의 삶을 10점 만점에 1점 이하의 점수를 주고 있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가정 내에서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아서 가정으로부터 자의로 직접 그룹홈에 입소하거나 가출을 하였다가 그룹 홈에 이주하였다. 그들은 매 맞다가 친척에 의해 목숨이 구해지기도 하고 술심부름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불안한 환경에 있었다. 먹고살기 힘든 어른들 눈치를 보느니 자신이나 자신과 함께 있는 어른들 양쪽에게 그룹홈은 훨씬 편한 곳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 부일처에 근간을 둔 가정제도라기보다 불륜 등 자녀의 양육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부모의 태도를 경험하였다. 또한 부부의 경계가 매우 느슨하고 폭력과 빈곤은 물론이고 가부장제의 특징인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성별로 인한 차별이 폭력적으로 존재하는 가정이었다.

제가 딸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고생했어요. 갓난아기 인 저를 하수구에 집어 던지고 친할아버지가 엄마를 계단에 굴리고 그랬었는데...(K)

#### - 두 얼굴의 가족

연구 참여자들이 쓴 글에 의하면 이들은 가족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난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도 '가족의 생각이 머리에 득실거리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한다. (이해, 선물2, 2008)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은 자신을 '숨 막히게 하는 존재' 한편 보고도 싶고, 한편 무서운 존재 들이면서도 미래의 막연한 행복의 근원이다. 가족 특히 부모로부터 '나에게는 너뿐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혈연적 가족의 의미가 이상화된다.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심한 폭력을 가했지만 '술 먹고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나쁜 아빠'라고 했던 '알고 보면 착한 아빠'에 대한 모순으로 점철된 기억을 갖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 일수록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이 크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가족원들 모두로

부터 학대와 방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가족과 생활할 때 늘 학대와 방임으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양가감정은 더욱 강렬하다.

엄마아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존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왔고 원망한 적은 없어요. 엄마가 보육원 보내고 그래도 원망한 적 없어요. 친엄마니까... 어릴 때 잘해 주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모르는 엄마 아빠 비밀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빠가 엄청 정을 주고 키우신 거 같아요...(L)

연구 참여자들에게 원 가족은 도망가고 싶지만 또한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버거운 존재이다. 기왕이면 자신과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잘 살아주길 바라지만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이 편한 것에 죄스러울 때가 있다.

제가 편하니까 엄마한테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일하시니까 저는 청소년이니까 이런 곳에 와있는데 엄마는 고생하시니까 안타까워요. (D)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리운 가족이란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 혹은 자신이 커서 찾을 존재들이지만 같이 살고 싶지는 않은 가족이고 '핏줄이 땅기는 감'은 있지만 특별한 정이 없거나 그 정이 점점 흐려질 수도 있는 가족이다. 그룹 홈 이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의 '정'을 기억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미래가 좀 더 구체적이다.

'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인연이라 생각하지만, 선생님이라 아빠랑 엄마랑 별 차이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아빠를 따라야겠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함께한 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아빠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선생님 좋으신 분이예요. (L)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의 생애를 닮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닮길 원하지 않는 것은 성별로 인한 차별, 가족에 대한 무책임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의 회복은 공간적인 합침이 아니라 가족 관계의 회복이다.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살 수 없다고 하여도 가족관계의 회복은 달라진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계속 연락이 되고 있거나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가족의 끈으로 생각하고 있다.

## (2) 터 잡기

### - 낯선 일상의 삶

그룹 홈 이전에 발생했던 신체 및 정서적 학대의 경험은 이후에 연구 참여자들이 그룹 홈에서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학대정도가 심하고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그룹 홈을 또다시 생존해야 할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럴 경우에 그룹 홈은 타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곳이며 임시로 사

는 곳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불량하고 불편한 가정에서 편한 생활시설로 들어왔지만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습관이 되어서 이전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매일 '밥 먹는 것'조차 새로운 일상으로 적응해야 한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습관이 되어서 낫설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은 매우 힘들다. '반갑다고 인사를 한 것을 내 등을 일부러 심하게 때렸으며 학교부터 그룹 홈까지 울면서 들어오고 방에 가서도 소리 내어 울었을 정도로 학대로 인해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었을 경우 일상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인사행위조차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적극적 및 소극적 학대와 방임으로 가정에서 그룹 홈으로 오게 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또래와의 교류 및 어른들로부터 지지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낮은 경험이다.

처음엔 오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혼자 끄끄 앓았어요. (C)

솔직히 처음엔 낫설었는데... 믿을만한지 아닌지 샘들은 낫설었어요...(C)

불러도 잘 못 들어서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할일을 하다 보니 생긴 집중력인 것 같았어요. 어린 청소년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한 모양이에요.' (D의 생활교사)

#### - 보살핌

연구 참여자들이 그룹 홈에 들어오기 전에 경험한 어른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무력 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야단칠 때 야단치는' 제대로 된 윗사람을 통해서 위계질서를 새롭게 체험하고 또한 그룹 홈 규칙을 통해서 자신들이 변하는 것을 느낀다.

거의 다 방황하구, 사고도 치는데 여기서는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러잖아요.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해 주고 혼도내구. 자식을 키울 땐 냉정하구 그러잖아요. 따뜻할 땐 따뜻하고 냉정할 땐 냉정하구.(B)

게임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도 별로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10시안으로 가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규칙이 없으면 새벽 넘어서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규칙이 있어서 PC방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고. 차츰 좋아지고 있어요. (I)

연구 참여자들은 원 가족 내의 위계질서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다. 그룹 홈은 '밥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보살핌을 제공한다. 그룹 홈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위계질서를 통해 보살핌을 경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살피는 사람들을 식구로 여긴다.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자신의 편이 되어서 해결해 줄때 신뢰한다. 정을

느낄수록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연구(박통희, 2004)에서처럼 아직 정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 홈 가족을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모험이다. 이들에게 식구의 조건은 '신뢰'이다. 그룹 홈 내에서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어떤 형편이라도 보살피 줄 것이라는 신뢰, 세상 속에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신뢰가 조금씩 형성된다. 자신의 편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보살피주는 존재에게는 가족의 호칭을 부여 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세상과 싸워주는 행위를 정으로 경험된다. 그들에게 그룹 홈 어른은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변덕'을 받아주는 사람이면서, 속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른이다. 하지만 자신이 맞닥뜨릴 미래의 두려운 현실을 준비시키는 냉정한 사랑(tough love)을 하는 '고마운 사람'이면서 닳고 싶은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의 '규칙'을 통해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엄마, 아빠(생활교사)가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가 한말들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셨어요 (C)

제가 막 싸우고, 학교에서 담배 걸리고 그랬을 때 쌤은 혼내지 않으시고 학교 가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집에 와서 그냥 왜 그랬냐. 그러면서 얘기해주셨어요. 학교문제도 난해했는데 선생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E)

제가 무척 까다로운 애예요. 그분들도(그룹 홈 생활지도교사들)처음에 저를 다루기가 피곤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애정을 고파해요 사랑안주세요 애정안주세요 관심안주세요 저 외로워요. 그래서 알았어. 사랑을 줄게 하면 저리가요 그랬어요. (K)

#### - 저울질 끝에 받아들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처럼 가족에서 뿔겨져 나온 사람들과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족에 양가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룹 홈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불편한 감정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집 식구로 살면서 내는 소리이다.

공부하기 싫어서 선생님께 울면서 안하겠다고 학교안다니겠다고, 그리고 작은 엄마 집에도 놀러가라고 했는데 전 그게 싫어서 (그룹 홈)가정을 옮겨 달라고 했어요. 그땐 선생님을 되게 미워했어요. (B)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다고 인정한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그룹 홈을 '집'이라고 부른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주로 자랐던 곳을 '동네'로 표현하고 원가족은 가족으로 그룹 홈 멤버들은 식구로 표현하고 있다.

엄마 아빠는 가족이지만 저의 집은 여기라고 생각해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식구이고, 동네는 옛날에 살던 데를 생각하고, 집은 여기다 라고 생각해요 (L)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에 존재하는 과거의 흔적으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식구로 부터 그들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사정을 말함으로써 우울증을 털어버리곤 한다. 이것은 원 가족으로 부터 받은 상처가 여전히 있고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이 있어서 자신의 옛날 습관이 나오더라도 연구 참여자들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만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부터 상처를 이겨내기 시작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타인을 '받아들임'은 곧 '이해'와 '어울림'의 의미를 띠게 된다. 즉,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지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룹 홈에 처음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본 모습을 감추고 들어와 편안해질수록 자신의 원래의 색깔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편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친구들을 갖게 된다. 친구들을 통해 사회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과업이 달성되는 것이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사람들을 (제가) 딱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색안경을 벗고 보면 그래도 아픈 거 참고 또 참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I)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을 가정으로 받아들일 때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면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를 경험한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을 받음으로서 행복을 알고 그럼으로써 웃을 수 있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과거 쭉그려졌던 심신은 그룹 홈에서 새로운 자람을 경험한다. 타인과의 의미있는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몸은 새로운 상황에 성장으로서 몸이 반응한다.

예전엔 그냥 제가 친구들 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고, 제가 워낙 부실해서요..키도 작고..근데 여기 와서 밥도 많이 먹고..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해요... 예전엔 운동 같은 거 잘 못했거든요...근데 여기 와서는 운동도 많이 하고 잘 먹고 해서, 키도 커지고 몸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E)

연구 참여자중에서 그룹홈에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 까지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또래의 시선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지나면 타인의 시선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룹 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가족이랑 살긴 사는데 저는 특별한 가족이랑 산다고 얘기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육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룹 홈에 관심도 없고, 단어도 몰라요.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K)

#### - 부대끼며 정 다지기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에 터 잡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습관, 그룹 홈 내부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및 세상과의 부대끼를 경험한다. 그룹 홈에서의 삶이란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과거를 이겨내는 진행형의 삶이다. 별별 경험을 다한 몸이 과거의 여운과 기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 홈 규칙을 지켜야 하고 생활교사 및 같이 사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옛날 습관을 이겨내야 하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에 익숙해짐으로써 그들은 조금씩 터를 잡게 된다.

처음에는 컴퓨터 하는 것 때문에... 밥 먹고 컴퓨터하고 밥 먹고 컴퓨터하고 많이 부딪쳤어요.  
(D)

연구 참여자들이 그룹 홈에 적응 하는 모습은 우선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된다. 타인에 대한 의심은 그들의 생애에서 대부분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의심은 구조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학교생활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새로운 구조화된 환경에 대한 자신의 적응 능력에 '의심'을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졌던 생활양식이 그룹 홈이라는 환경에 부딪히면서 갈등을 경험한다.

하루 종일 이어폰을 들으며 주변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귀가 상할 것이 염려되어 조금씩 절제를 시켰는데 충동이 많았죠. (D의 생활교사)

일단 가족이 있는 거랑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나를 가르쳐주고 보내는 것이 좋아요. 싸움이라든가 갈등이 있지만 그것도 느끼고 배워야지요. 그래야 사회생활도 잘 하지요(C)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그룹 홈 이전에 혹은 그룹 홈에 거주하는 중간에 '가출'을 통해서 밖에서 체험한 위계질서는 '힘'의 과시 즉 폭력과 관련이 있었다. 그룹 홈은 갈등이 있는 곳으로 '강자'가 있어서 힘든 곳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 가족 내의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룹 홈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룹 홈에 대한 인식은 작은 고아원으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룹 홈은 배경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것도 경험한다. 가출기간동안 혹은 기타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했던 강자의 폭력성을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권력과 권위의 미묘한 차이와 위계질서를 새로운 가족과 부대끼면서 배우고 경험한다. 어른이 세워놓은 위계질서를 건디고, 함께 사는 또래들과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게 된다. 연구 참여자는 위계질서속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선배의식'이나 '또래압력'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억지로 하는 경험도 하고 또래와의 갈등 속에서 어울림의 다양한 형태를 알게 된다.

형들이 저의 든든한 뺨이죠. (D)

그룹 홈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간이다. 자신의 존재가 도움을 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저는 실제 가정처럼 우리(그룹 홈)가정을 많이 아껴요. 샘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언니들을 친언니처럼 생각해요... 굶은일을 하면서도 '네'하고 해요.(A)

애들한테 이것저것 친구도 해주고...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하면서 기도도 하고.. 뭘 해줄 수 있어서 기분 좋아요. (E)

- 특별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처럼 가족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과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형성하는 그룹홈을 통하여 자신과 비슷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과의 평범한 삶을 영위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 내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성장 한다. 심신이 성장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타인의 상처를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고 자신의 처지와 관련하여 주변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 규율을 지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성질을 참아내고 다른 사람(또래, 동생)을 돌봄으로서 가정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스스로도 놀란다. 성질을 부리고도 여전히 가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감을 갖게 되고 집안일을 통해서 가족원으로 역할을 해봄으로서 '사람구실'도 배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을 기대 받고 있기 때문에 '조숙'하고 따라서 일찍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변화를 대견하고 놀랍게 생각한다.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책 한자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D)

(자립해)나가면 또 그런 습관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나가서 (청소) 습관 안 들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세탁기작동법도 모르면 좀 창피하잖아요. (I)

학교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문화인 그룹 홈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알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범하지 않은 가족과의 삶속에서 평범한 삶을 꿈꾼다.

전에는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할 수 있는 웬만한 평범한 생활을 꿈꾸어 볼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H)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 타인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받기 때문에 자신 또한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능력만 된다면 여기 생활교사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살면서 저 같은 애들이 있을 거니까 저보다 더 한 애도 있고 덜 한 애도 있겠죠.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B)

### (3) 새로운 세계로 행진

#### - 세상살이 시운전

연구 참여자에게 그룹 홈은 가족이 아닌 식구들과 함께 사는 '집'이지만 이집의 특징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룹 홈에 들어오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외부세계와 매우 제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생존에 급급했던 시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원 및 사회와 참 교류를 해본 경험이 매우 적었다. 새로운 세상과 환경에 노출된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에서 꿈을 꾸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일단 집에만 있었으면 할 수 없는 것들,... 오늘만 해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었고 좀 피곤했는데요 제가 소설가가 되려하니깐요. 중세시대 생활관 건물 양식 등을 눈여겨봤고.. 역사들을 알 수 있었어요. ○○ 형처럼 가출할까도 생각했는데.. 안하길 잘했어요. 참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한 것이 좋았어요.(D)

집에 있으면 집안형편 때문에 대학 같은 데 못 가잖아요..근데 여기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대학 같은 걸 말해주셔서...지금 대학가는 걸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E)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그룹 홈에서 연마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룹 홈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곳이면서 미래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 식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장단점도 알게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피드백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며 그룹 홈 식구들과 관계 맺는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적응을 준비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세상에 강해 보이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민감해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싸움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싸움의 중재자가 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그룹 홈에서의 생활은 앞으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실수해도 안전한 시범 운전 장 같은 곳이기도 하다.

처음엔 사람을 피하고 되게 버르장머리 없고 친하다고 막 대하고 해서 애들한테 재 왜 저러니 하면서 손가락질도 당했는데 여기 와서 막내라고 예쁨도 받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소통도 하고 언니와 샘들에게 배웠어요.(A)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겉모습만 보고 나쁜 애로 여겨지는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룹 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거나 가능태를 인정받는 경험을 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그룹 홈은 방황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룹 홈은 하나의 쉼터, 피난처 이상의 곳으로 자신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다. 평범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 여기서 과거의 자신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힘을 얻게 되고 자신의 청소년으로서의 권리 즉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라든가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학급 일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그룹 홈에서 생활하다보니깐, 학교에선 매우 조용했고 가정에선 말이 많았는데, 선생님과 상담 많이 하고 하니깐 가정에서처럼 학교에서도 해보면 어떠냐고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B)

- 나갈 준비를 차림

그룹 홈 청소년들에게 자립은 막연하다. 그들에게 자립은 막연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기대로 어른이 만들어놓은 자립을 맞이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장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동의어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립은 막연하다. 그들에게 자립은 막연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기대로 어른이 만들어놓은 자립을 맞이하게 된다. 성장이면에는 자립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가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감사함을 모르는 '시설 병'에 걸릴까 두려워한다.

여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니깐 밖에 나가면 저는 자립하기 막막해요. (J)

저한테는 자립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씀하면 사회에 나가서 어떡할래? 그러는데 저도 막막하죠. 저도 사회에 나가면 뭐하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될 대로 대라든지, 나가게 되면 살겠지... (L)

청소년들에게 어른들로부터의 '독립'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독립'은 '자립'이라는 뜻이 추가되어 다른 뜻이 생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립'은 버려짐 혹은 내쳐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인 생활지도교사들에게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그것이 현실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룹 홈의 생활지도교사들에게 야속한 감정을 갖기도 한다. 이렇듯 생활지도교사를 고맙고 야속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안전한 개인에게 투사하여 자신들 식의 '응석'을 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룹 홈에 대해서 일부러 정을 주지 않으려 한다.

누가 저한테 지원하거나 뭐 가르쳐 준 다는 게 싫어요. 도움만 받아 버리면 무능력해지니까. 사회 나가면 저는 이런데 살아서 잘 모르고 누가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J)

그들은 닳고 싶고 자신들을 깊숙이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자신이 가족이라고 소개하고 생활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어른들이지만 결국 사회의 규칙에 따라 자신들을 어쩔 수 없이 나를 세상으로 밀어내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아픈 현실을 자주 상기시키며 숙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립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한 섭섭함의 대상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룹 홈은 '가정'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이상화하는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립준비에 마음이 분주하면서도 자신이 소극

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이 불안은 자신의 성장이 자립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면서 기반이 약한 현실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립은 성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일정시간에 이루어 내야 할 과업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러한 준비 없이, 외부로 규정되어 자립이 요구될 때 연구 참여자들은 '세상의 끝'에 내몰리는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미 다 준비된 그룹 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부모님이 챙겨주는 경험의 일부를 일반 가정과 유사하게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자립을 진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일반 가정에 대한 이상화는 자립의 불안이 생길 때 극대화된다.

선생님들은 이게 너희들 자립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딱 내놓아요. 내놓으면 어떻게든지 살겠지 하고 슬슬 뒤에서 미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저 같은 애는, 내쫓는 기분이 들어요. (K)

#### - 저쪽 울타리 바라봄

그룹 홈 식구들이 원가족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그룹 홈 식구들과 우애가 발휘되어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된다. 또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식구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 구성원과 사는 것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에 사는 자신들과 이상화된 '일반가정'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한다. 일반 청소년들은 사회에 나가서 사는 것을 자신들과는 달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가족신화'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들이 꿈꾸는 평범한 생활의 모습은 매우 달라진다. 신화에 대한 매달림이 있는 아이들일수록 부모 있는 아이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부모님 울타리랑 이런(그룹 홈)울타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 있는 애들은 대학 학비를 다 해 주시고 뭐 집도 굳이 독립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있어서 불안감이 없을 것 같아요 (J)

연구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대부분 직접 일반가정 출신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일반 가정 출신과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혈연에 근거한 가족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 가정 출신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그룹 홈에서 산다는 사실 하나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유대감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유대감 혹은 일체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청소년기의 '자의식' 생성과 맞물려 자신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는 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기도 한다.

일반 애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해요... 뭐가 마음이 맞지 않아요. 친근하게 대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들은 다 저 같은 애들이었어요.(J)

'가족신화'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도 과거의 해결책인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믿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갈등해결을 위해 비효율적 해결책을 쓰지 않는 것이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일반가족'은 어떠한 행위를 서로에게 해도 용납된다는 과거 경험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 - 내가 선택한 가족

연구 참여자들은 혈연보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서서히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룹 홈에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가족 구성원들의 선택을 일찍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립에 함께 사는 생활교사들과 '친구'들의 존재는 특별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족을 선택하고 살아냄으로써 '정상가족', 혹은 '표준가족'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다.

3명이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 다니고 ...그래서 졸업하면 군대도 같이 가고 나와서도 같이 살고 싶어요.. (E)

저는 (그룹홈을)시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태어나게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K)

저는 어릴 적에 피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여기는 피가 다 틀리잖아요. 피가 달라서 친동생 친형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이 없어진 거 같아요. 고정관념이... 피가 달라도 같이 살 수 있다 생각해요 (L)

## 6.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벤 매넨에 의하면 인간의 실존은 체험적 신체, 체험적 공간, 체험적 시간 그리고 타자와의 체험적 관계라는 네 개의 실존체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그것들이 생활세계 즉 체험적 세계라고 부르는 복잡한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나의 실존체가 언제나 나머지 측면들을 일깨운다(벤매넨, 2000). 인간은 신체를 통해 타인을 만나고 경험한다. 체험적 신체는 우리가 언제나 세계 속에 신체적으로 존재한다는 현상학적 사실을 가리키는데, 연구참여자에게는 터전에서 꿈을 꾸는 몸으로 체험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인간을 체험된 세계와 관련시키는 실존적 주제인 체험적 공간은 자신을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곳이다. 우리가 타자와 공유하는 대인적 공간에서 타자들과 유지하는 체험적 관계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은 가족보다 진한 식구의 정이다. 체험적 시간은 시계가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 시간이다. 연구참여자에게 그룹홈의 시간은 세상살이 준비기간으로 체험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 나타난 청소년들이 체험한 그룹홈은 자신들을 적절하게 성장시키는 곳이며 미래를 준비하여 자립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다. 학대와 방임의 경험과 같은 과거의 흔적이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가정' 및 '혈연가정'에서 파생된 '돌봄'행위와 다른 창조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또래 및 어른들과 능동적인 교류를 하며 지내고 있다. 인간의 결핍은 끊임없이 타자애로의 향함이 있게 하기 때문에 이를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레비나스(레비나스, 2004)가 간과한대로 자신이 선택한 식구들과 능동적인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그룹홈 거주 청소년들의 삶을 결핍이라는 틀로만 보는 시각이 교정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 2) 연구에 기반을 둔 실천적 제언

아동기를 지나서 가족 내의 빈곤, 학대 방임 및 해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기에 입소한 그룹홈 청소년들의 내부자적 관점을 드러낸 본 연구는 그룹홈 체험의 이해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획일적인 서비스제공을 지양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 청소년의 욕구 및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각종 서비스 및 매뉴얼은 내부자적인 관점에 의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인 시혜적 차원에서 그룹홈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했다면 소비자적인 관점의 시각을 발전시키도록 다양한 질적 연구가 양적연구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거에 기반을 두어 그룹홈 청소년 및 이들이 거주하는 그룹홈에 대한 실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그룹홈은 아동복지법 내에 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반가정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유지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에게 가부장적 가족유대의 신화로 인해 가족 관계가 굴레와 압박으로 작용한다. 가족유대가 약화된 가정의 아동, 청소년이야말로 새로운 공동체의 형태로 양육 보호되어야 한다. 혈연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청소년일수록 과거의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떨쳐내고 대안적 형태인 건강한 성인이 존재하는 가정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정은 미래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도록 실습하고 훈련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룹홈 청소년들이 가족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체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룹홈 청소년들은 두 측면의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가족과의 관계이며, 두 번째는 그룹홈 구성원과의 관계이다.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그룹홈 청소년들은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룹홈을 떠나서 원가족으로 복귀 시, 혹은 자립할 때라도 원가족과의 관계개선 및 회복을 통하여 보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룹홈 내에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그룹홈 가족구성원들이 정을 나누고 친목을 다짐으로써 갈등을 해결해나가기도록 가족친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창조적 돌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룹홈 생활교사들은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처를 보듬으면서도 진로를 함께 탐색해나가는 창조적 돌봄의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생활교사 일평균 근로시간은 16.27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 6.29일(정익중·조순실, 2008)로서 창조적 돌봄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근무시간이다. 따라서 그룹홈 생활교사들의 휴식 그리고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립준비와 자립과정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룹홈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원이 미약하기에 자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룹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립에 대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소수인원이 특징인 그룹홈에는 아동청소년들의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퇴소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립 및 퇴소 청소년의 사례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청소년중심으로 구성된 센터형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그룹홈 중에서 센터형 그룹홈은 소수이며,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그룹홈도 그리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살아가는 개별형 그룹홈, 그리고 어린 아동기에 그룹홈에 입소하여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체험이 더 드러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기정. 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김광수. 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집단가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광수·조순실. 2006. “아동그룹홈실태 비교연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김성경. 2003a. “그룹홈 거주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경. 2003b.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0(1): 117-137.
- 김진숙·이혁구. 2007. “일반위탁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87-116.
- 김현주. 2001. “그룹홈의 가족체계적 특성과 가족기능의 수행” 『사회과학연구』 14:93-121.
- 김형태·조순실·문영희. 2006. “아동그룹홈 현황분석 및 매뉴얼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형태·조순실. 2009.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6(3): 259-286.
- 김혜영. 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출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 위 논문.

- 노혜련. 1999.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이론과 과제”, 분야별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들꽃피는 학교. 2008. “이해·선물2.” 들꽃 피는 학교 글 모음집.
- 레비나스, 엠마누엘. 2004.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 박용철. 1998.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통희. 2004. “정, 가족주의 그리고 대인간 신뢰.”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2004.12
- 벤 매년·맥스. 2000. 신경림 역. 『체험 연구』. 서울: 현문사.
- 보건복지가족부. 2008. 통계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통계자료.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2005.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앵겔스·프리드리히. 1985. 김대웅 역. 『가족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아침.
- 이삼미. 1989.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아동의 자립성과 심리사회적 적응력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수·함철호·이용교. 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 이태수·노혜련·함철호·김광수. 2001.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실태 및 보호양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 꽃동네사회복지연구소.
- 장윤영·박태영. 2006. “피탁대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과정관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425-456.
- 정선옥. 2002. “가정외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청소년의 애착유형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가을) 149-172.
- 정익중·조순실. 2008. “아동·청소년 그룹홈 실태조사연구.” (사)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 조성연. 2004.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형제자매관계 및 사회적 적응. 『한국생활과 학회지』 13(3): 381-391.
- 조순실. 1999. “아동 그룹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 2004. “친인척 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2): 243-271.
- Clarke, R. V and Cornish, D. B. 1972. *The Controlled Trial in Institutional Research-Paradigm of Pitfall for Penal Evaluations*. Home Office Research studies. 15.
- Colton, M. J. 1988. *Dimensions of substitute Child Care*. Aldershot: Avebury. 1990. “Specialist foster family and residential child care practices.” *Community Alternative* 2(2): 1-20.
- Downs, S. W., Costin, L. B. and McFadden, E. J.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 N. Y.: Longmad Publishers. Eisikovitis, R. A., and Kashti, Y.(eds.) 1987.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in Group Care*. N.Y.: Haworth Press.
- Giorgi, A.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Michael Crotty(2001). 신경림·공병해 역. 『현상학적 연구』 현문사.
- Peter, Christopher G. 1998. *Social Work with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ragmatic Found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The Adolescence's Lived Experiences of Group Home

**Kim, Sun-Min**

(Han Sung Univ)

**Cho, Sun-Sil**

(Soongsil Univ)

Group home family has emerged in the era of various forms of family existing. There are adolescents who are 'living in group home' yet, the meanings of living in group home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literature. The authors attempts to reveal the lived experiences of group home residents and the meanings of living in a group home with group of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The authors reveals 'being cared for' and 'being there for each other' are the themes of lived experience to the group home residents. The study shows how the residents had survived in their family of origin and how those experiences have affected one's lived experience in their living in group home.

Key words: grouphome, adolescence living in grouphome, experience, family

[논문접수일: 09. 09. 01, 심사일(재심사): 09. 09. 16(10. 19), 게재확정일: 09. 10. 31]